

HYUNDAI E&C TODAY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 1차

ART+H

Hillstate Lake Songdo Complex I

여름 향기 가득한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로 초대합니다!

Hillstate Lake Songdo Complex I is recognized as Korea's first multi-family housing with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Level 1+-. It has received the Ministerial Award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t the Korean Intelligent Building Award. The apartment complex provides a wide range of energy-saving systems including the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 developed by Hyundai E&C, which enables it to consume only half the energy other multi-family houses do.

On the part of its residents, they can get a wide view of the West Sea and the Waterfront Lake at their homes and leisurely enjoy flowers and trees along with waterscape.

▶ Continued on page 4, 5

'국내 최초 공동주택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 '대한민국 지능건축을 대진 국토부장관상 수상'에 빛나는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 1차, 현대건설이 연구·개발한 스마트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을 비롯해 다양한 에너지절감 시스템을 총망라한 단지는 다른 공동주택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에너지 소비량을 자랑한다.

또한 세대 내부에서 서해와 워터프런트 호수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곳곳에 조화를 머금은 꽃과 수목, 수경시설이 있어 여유로운 유식을 취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 관련기사 4, 5면

Our company wins 3.2-trillion-won plant deal in Saudi Arabia

Signing contract for Packages 6 and 12 of Marjan Development Program



Our company has successfully landed a mega-sized plant construction order from Saudi Arabia. Our company signed a contract for two major packages (No. 6 and 12) of the Marjan Development Program worth 2.7 billion dollars, or approximately 3.2 trillion won, at Saudi Aramco's

headquarters in Dhahran on July 9. The Marjan Development Program is to build an oil and gas refining complex to process the oil and gas produced in offshore fields of Marjan, about 250 kilometers northwest of Dammam in eastern Saudi Arabia. In detail, Package 6 aims at expanding the existing facilities to



additionally separate and process 300,000 barrels of oil and gas per day. Package 12 includes the construction of power and water supply facilities for an onshore plant which processes 2,500 million standard cubic feet of gas per day (MMSCFD). "Our technology, quality and construction schedule demonstrated in

the ongoing construction of the Uthmaniyah Ethane Deep Recovery Plant has gained trust from the client," said an official of Hyundai E&C. "This successful deal is all the more meaningful in that our technology prowess and construction capabilities were recognized despite the stiff competition with global leading competitors."

사우디서 3조2000억원 규모 수주 '잭팟'

'사우디 마잔 개발 프로그램 패키지 6·12' 계약 체결...기술력·시공능력 검증

우리 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초대형 플랜트 공사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 회사는 7월 9일(현지시간) 사우디 아람코 다란 본청에서 총 27억 달러 규모(약 3조2000억원)의 '사우디 마잔(Marjan) 개발 프로그램 패키지 6·12'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 서명식에는 우리 회사 이원우 플랜트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사우디 아람코 아민(Amin H. Nasser) 사장, 알사디(Ahmad A.

Al-Sa'adi) 수석 부사장, 파하드 헬랄(Mt. Fahad E. Al-Helal) 프로젝트 매니저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우디 동부 담맘(Dammam)에서 북서쪽으로 약 250km에 위치한 마잔의 해상 유전에서 생산되는 가스·원유를 처리하는 시설물을 짓는 공사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공장에 일산 30만 배럴의 원유·가스를 추가로 분리·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플랜트

(패키지 6)와 2500MMSCFD(일일 100만 표준입방피트)의 가스를 처리하는 육상 플랜트에 전력·용수 등 운영에 필요한 유틸리티를 공급하는 간접시설(패키지 12)로 구성됐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우쓰마니아 에탄 회수처리시설 현장을 통해 기술·품질·공정 등 모든 면에서 발주처인 아람코의 신뢰를 받아왔다"며 "이번 수주는 글로벌 우수 경쟁사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우수한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회사는 1975년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시작으로 사우디에 진출한 이래 반세기 동안 2012년 마덴 알루미나 제련소 건설공사를 포함해 총 156여 개, 약 170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완수했다. 현재 우쓰마니아 에탄 회수처리시설 공사 등 총 6건, 14억 달러 규모의 공사도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다.

싱가포르 투아스(Tuas) 핑거 3 매립공사 진수식

우리 회사의 투아스 핑거 3(Tuas Finger 3) 매립공사 현장이 7월 4일 케이슨(Caisson) 진수식을 진행했다.



현지에서 진행된 이날 진수식에는 우리 회사 박찬수 토목사업본부장, 안영집 주싱가포르 대사를 비롯해 싱가포르 교통부 Dr. Lam Pin Min 수석관료 등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현장의 무재해와 성공적인 준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케이슨을 바다에 띄우는 것으로 시작됐다. 케이슨은 수상

이나 육상에서 제작한 상자 형태의 속이 빈 콘크리트 구조물로 교량의 기초, 방파제, 안벽 등으로 사용된다.

우리 회사는 케이슨을 활용해 연장 9.1km의 안벽을 설치, 387ha의 신규 매립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상반기 영업이익 4503억원... 전년 대비 2.5%↑

우리 회사가 7월 25일 2019년 상반기 연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8조5595억원, 영업이익 4503억원, 당기순이익 348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0%, 영업이익은 2.5%, 당기순이익은 1.9% 증가했다.

2분기 매출은 4조6819억원, 영업이익은 24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4%, 11.0% 증가해 매출 확대에 따른 영업이익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영업이익률은 5%대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수주는 사우디 마잔 프로젝트

(패키지 6&12) 등 해외 공사와 다산 진건지구 지식산업센터, 광주광역시 신용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사업, 고속국도 김포-과주 제2공구 등 국내 사업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한 11조4841억원을 기록했다.

수주잔고도 상반기 기준으로 58조7389억원(전년 말 대비 +5.3%)을 유지하고 있어 약 3.5년 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하반기에도 사우디아라비아·알제리 등에서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제3회 기술교육원-협력사 채용박람회

우리 회사가 업계 최초로 시행 중인 '현대건설 기술교육원-협력사 채용박람회'가 7월 1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에서 진행됐다.



3회째를 맞은 이번 채용박람회는 기술교육원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구인난을 겪는 협력사에 우수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토목·건축·플랜

트·기계·구매 등 다양한 분야의 27개 협력사를 비롯해 실무 과정을 수강한 교육원생 170여 명이 함께 했다.

2019 SHARP Award 3관왕 달성

우리 회사의 싱가포르 투아스 핑거 매립공사, 장이동부 매립, MRT 동부선 T308 공구 등 3개 현장이 싱가포르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와 WSH(Workplace Safety & Health) Council이 주관한 '2019 SHARP Awards'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무재해 150만 시간 이상을 달성한 현장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춘 시공사를 선

발하는 SHARP Award는 선정 조건과 심사가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하다. 올해는 우리 회사를 포함해 총 28개 업체가 선정됐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안전 관련 최고 권위의 상인 'SHARP Awards' 수상으로 우리 회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인정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싱가포르 내에서 현대건설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룹사 뉴스

현대자동차그룹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 본선 개최



현대자동차그룹이 '제14회 미래자동차 기술공모전: 2019 대학생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를 7월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케이시티(K-CITY)'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미래 자동차 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자동차에 직접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열한 경쟁 끝에 한국기술교육대팀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성균관팀이 준우승을, 카이스트 유레카팀이 3위를 차지했다.

사내 소식

국민은행 IT센터 준공식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에 위치한 국민은행 IT센터 현장의 준공식이 7월 19일 열렸다.

이날 준공식에는 우리 회사 박동욱 사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허인 KB국민은행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은행 IT센터는 최고 수준의 안전성·보안성을 갖춘 통합 데이터 센터로, 연면적 4만232㎡(1만2171평)의 운영동(지하 2층, 지상 4층)·IT동(지상 7층)으로 구성됐다. 우리 회사는 2017년 10월 착공한 이래 20개월여의 공사 끝에 올 6월 28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현장 관계자는 "면접장치·외장 패널 시공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현장 직원들의 협업으로 무사히 공기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전 공정 무재해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성공적인 준공을 위해 몰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바다 탐험대 옥토넷' 업무협약 체결



우리 회사가 ㈜윌리버드픽처스와 협력해 인기 애니메이션 '바다 탐험대 옥토넷' 캐릭터로 어린이 놀이터를 선보인다.

우리 회사는 6월 28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우리 회사 윤영준 주택사업본부장, 인기가 디자인마케팅실장을 비롯해 ㈜윌리버드픽처스 김대창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를 통해 양사는 어린이 놀이터 출시를 위한 디자인,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바다 탐험대 옥토넷' 놀이터는 올해 하반기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현장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Korea's Confucian academies join Unesco list: Seowon served as hubs of education and tradition

July 08

Seowon, which includes nine buildings that were used as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during the Joseon Dynasty (1392-1910), joined Unesco's list of world heritage sites on Saturday. The decision was announced at the 43rd Unesco Intergovernmental Committee, which is currently being held in Baku, Azerbaijan. The United Nations (UN) committee said that it decided to add the buildings for their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t was Korea's second attempt to get the nine seowon on Unesco's list of world treasures after it decided to withdraw its application in 2016. At the time, Unesc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which screens and recommends the items to be listed, pointed out that there was a lack of a commonality among the nine seowon.

Seowon were a type of educational facility during the Joseon Dynasty that also acted as Confucian shrines. Young Koreans were educated here and these buildings also were key places for discussing social and state affairs among local aristocrats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nine recommended academies are Sosu Seowon in Yeongju, North Gyeongsang; Namgye Seowon in Hamyang, South Gyeongsang; Oksan Seowon in Gyeongju, North Gyeongsang; Dosan and Byeongsan Seowon in Andong, North Gyeongsang; Dodong Seowon in Daegu; Pilam Seowon in Jangseong, South Jeolla; Museong Seowon in Jeongeup, North Jeolla; and Donam Seowon in Nonsan, South Chungcheong.

According to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e nine seowon are said to be the only



well-preserved remaining neo-Confucian academies in Korea.

"Most buildings were destroyed in the 18th century due to political reform plans," said an official from the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on added that the latest inscription is especially significant as Korean seowon finally were "acknowledged internationally that they are different to similar Confucian buildings in China and Japan."

It is true that Korean seowon were initially established by "benchmarking the Chinese Confucian halls," explained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owever it developed to be uniquely different."

According to experts, the main purpose of Chinese seowon was to train government

officials. Korean seowon served as a place where scholars gathered together to polish and express their ideas in writing, enshrine ancestors' tablets and also hold ancestral rites.

Therefore, unlike Sungkyunkwan, where education was its purpose, or hyanggyo, a Confucian temple and school to teach local students in the Joseon Dynasty, "Korean seowon was a place where Confucian scholars were trained by deeply understanding the way and mind of the ancestors whose spirits are enshrined there."

With the addition of seowon, Korea now has a total of 14 items listed on the Unesco's World Heritage List.

By KOREA JOONGANG DAILY

Hello! Foreign Staff

"Hyundai E&C is a great platform to develop career"

LJUJOY
(Project control staff in the subcontracting
section of the Ethane Deep Recovery Facility
Project in Uthmaniyah, KSA)



Q Could you briefly tell us about yourself?

I am Lju Joy, 34 years old, and I was born in Kerala, India. I completed my education in 2006 and started my career with Hyundai E&C in 2007 as an office assistant. I am a self-motivated and disciplined soul. It is an honor to say that I am working with Hyundai E&C for the past nine years as part of three successfully completed PC Contracts, such as the Khurais Central Processing Facilities (SONE), the Karan Gas Facilities (KONE), and the Maaden Alumina Refinery (SAMA), and the ongoing Ethane Deep Recovery Facilities (SEED) in Saudi Arabia. Currently I am holding a position of project control staff in the subcontracting team.

Q What made you join Hyundai E&C?

It is a great privilege for me to work with Hyundai E&C as it is one of the top global companies. It was a golden opportunity to start my career with this world-renowned company with well experienced managers and staff where quality and safety are considered its utmost priority. The main strength of Hyundai E&C I believe is the ability to work together as one team to accomplish business goals.

And it is a great honor to see people impressed while saying I am working in Hyundai E&C.

Q What do you think of the most important thing to carry out your work?

I believe the more works I get, the more I learn. I got inspired by my Korean managers as they handle multiple tasks at a time without being stressed. I put all my efforts to make it done on time. I never feel nervous to ask advice from my seniors to make the job done properly.

Q Please give some advice to new foreign employees.

Hyundai E&C offers lot of opportunities such as global talent programs for qualified hardworking personnel. Hyundai E&C is a great platform for its employees to develop their career by attending mindset programs and online training courses as well as a good chance to know about different types of nationalities and cultures etc. We can have all the knowledge in the world, and building up the confidence to do with it is important. Hence, be responsible for our work, maintain the company's quality standards, work safely, do not entertain unsafe activities and also spare some time to help others.

10 Minute Korean Lessons

At a food court



Do I order here?
주문 여기서 해요?

Joo-moon yuh-gee-saw heh-yo?

Yes. When the number on your ticket appears on the screen, please go get your food from the counter.

네, 여기서 하시고 번호표에 있는 번호가 전광판에 뜨면 가서 받으시면 돼요.

Neh, Yuh-gee-saw hah-shee-go
baw-no-pyo-ay een-neun
baw-no-gah jawn-gwahng-pah-neh
ddeu-myuhn gah-saw
bah-deu-shee-myuhn dweh-y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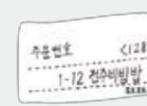
Other expres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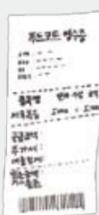
Menu
메뉴
meh-nyou



Order
주문
joo-moon



Number ticket
번호표
baw-no-pyo



Receipt
영수증
yuhng-soo-jeung



Number display screen
전광판
jawn-gwahng-pahn



Return
반납
bahn-nahp

The content above is from 'Korean Phrasebook for Travelers' by Talk To Me In Korean, a company that provides free Korean language learning materials. Check out TalkToMeInKorean.com for further lessons.



똑똑하고 안전하게, 전기로 부담 없는 국내 최초 고품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차 현장 서해 바다와 워터프린트 호수가 양옆으로 펼쳐진, 때때로 은은하게 깔리는 안개가 운치를 더하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단지에 들어서면 시선 닿는 곳마다 푸르른 나무와 청량한 분수에 마음마저 시원해진다. 쾌적한 주거 환경에 국내 최초의 고품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고, 스마트홈 기술로 건축물의 지능화 및 고도화를 선도하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차를 둘러봤다. 글=이진우 / 사진=이슬기 / 현장 리포터=김성우 대리, 최원국 사원



그린 스마트 기술 입은 최첨단 아파트

초록의 기운이 물씬 풍기는 단지 내 산책로를 걷다 하늘을 향해 높이 뻗은 아파트를 올려다 보니 촉박에 견고히 설치된 모던한 느낌의 패배는 눈길을 끈다. 조명 등 공용부와 세대 내부에 활용할 전기를 모으는 태양광발전 모듈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 기술이 적용된 설비다.

2015년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제로에너지 빌딩 시범사업'에 선정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차는 우리 회사가 오랜 연구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과 공법으로 실현한 국내 최초 고품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이다. 패시브 기술(외부로 새는 에너지 차단), 액티브 기술(전환적용 방법으로 스스로 에너지 생산),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관리 기술 Smart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했다. 그 결과 국내 공동주택 부문 최초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에 내지자립률 23.37%' 본인증을 받으며 제로에너지 빌딩으로서 주거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현장 관계자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밀성 확보'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건물 내 공기 흐름을 철저히 분석해 모든 개구부 주위와 전기 설비, 배관 주변 틈새 공기를 차단하고 외부 컨설턴트 리포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이어 나갔다고.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이었지만 관계자 모두가 합심한 덕에 목표 대비 월등한 기밀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고성능 단열재-차호 사용으로 단열 성능을 향상하고 LED 고효율 조명·HERV*·TEEMS*를 적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모듈·연료전지 등으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공용부에 공급하는 것으로 에너지 절약을 구현한다.

쾌적함에 안전성까지 더하는 스마트 기술

단지 내 방재실의 한 면을 빼곡하게 채운 모니터의 불빛은 24시간 꺼지지 않는다. 우리 회사 R&D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Smart BEMS를 통해 앞서 언급한 모든 에너지 운영의 모니터링과 통합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Smart BEMS는 친환경 에너지 전량생산량과 건물 내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하고 최적으로 제어해 단지의 통합성 및 관리효율을 극대화한다.

아름이 내려앉은 밤에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차 단지에는 밝은 빛이 가득하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로 전체 조도를 높이고 곳곳에 CCTV를 설치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덕이다. 쓰레기 분리장의 답을 낮춰 내부 시설이 가능하도록 세심한 또한 입주민의 편안한 생활을 돕는다.

이뿐만 아니라 침실청정 유해물질(HCHO) 흡착벽지 시공, 에너지-환경관리시스템(TEEMS) 활용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체 개발한 하이오티(Hi-Off) 기술로 편의성을 더한 점은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차의 가치를 높인다. 이처럼 사물인터넷과 네트워크, 센서 및 시스템 등에 IT 기술을 반영해 쾌적함, 안전함, 경제적 향상까지 갖춘 결과 '제2회 대한민국 지능형건축물 대전'에서 대상인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스마트 시티 조성의 기반을 단단히 다졌음을 입증했다.

프리미엄 힐스테이트 시티 탄생의 타이프를 끊다

지난 6월 준공 후, 입주민을 맞는 현장의 감회가 새롭다. '국내 최초 고품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지능형건축물 대전 국토부장관상' 등 최고의 타이틀을 여럿 달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가볍지않은 않았기 때문이다.

황량한 매립지 한가운데 첫 삽을 뜬 현장, 연약 지반과 강풍 등 자연현상에 맞서며 진입로를 개척하고 급·배수라인 매설, 전신주 설치 등 기반 시설을 세우며 그야말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 왔다'고 관계자들은 회상한다. 미래 주거공간 형태에 한발 다가선다는 책임감에 '최초'라는 단어가 무게를 더하고 생산 소한 공중들이 부담되기도 했다. 하지만 R&D센터 등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며 공사를 진행한 끝에 제로에너지 부문의 불리더로 우뚝 섰다. 대학 건축과는 물론 타 건설사에서도 견학을 요청할 만큼 대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현재, 현장 관계자들은 제로에너지 부문의 선두주자로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차 옆으로 2차+내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어 6차까지 5000세대가 넘는 '힐스테이트 시티'를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예정이다 더 나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다.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을 쏟아부은 만큼, 값진 시공 경험에 힐스테이트 시티의 성공적인 준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1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차 현장. 2, 3 단지 내 조명. 4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로 전체 조도를 높였다. 5 아기가기만한 어린이 놀이터. 6 Smart BEMS로 에너지 운영을 통합 관리한다. 7 아파트 촉박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

Great People interview

글로벌하고 다각적인 시선을 갖춘 최고의 현장 지원자 현장소장 최원호 부장

1989년 입사 후 국내뿐 아니라 이집트·카타르·싱가포르 등 해외 현장 경험까지 풍부하게 쌓아온 최원호 부장. 국내외 현장의 공사·공무를 맡으며 갖춘 글로벌하고 다각적인 시선으로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2018년 1월 부임 후 귀감이 될만한 여러 현장을 탐방하며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의 품질과 안전성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 애썼다. 지난 6월, 1차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이후 2차의 준공 또한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안전을 기하고 있다. "해외 현장에서 국내로 복귀하면서 국내 현장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다시 배우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직원들이 워낙 잘 해준 덕에 성공적으로 1차 현장을 준공할 수 있었어요. 공사를 진행하며 얻은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6차 현장 준공 때까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현장 문제 해결사 사업지원팀장 김한규 부장

본사 회계부를 비롯해 사우디 지사, 싱가포르 지사, 쿠웨이트 지사 등을 떠나들며 역량을 쌓은 김한규 부장은 현장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해결 방안을 찾는다. 특히 직원 간 인화에 세심하게 신경 쓰며 힘든 작업 환경 속에서 업무에 철저히 임하되 마음은 편안하게. 각자의 R&R을 능동적으로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한 바람과 해무 등 자연적 조건까지 어려웠던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의 모든 직원이 열과 성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해 온 모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내년 1월 준공 예정인 2차 현장과 향후 예정된 3~6차 프로젝트도 훌륭하게 수행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풍부한 네트워크를 지닌 아파트 전문가 사업수행팀장 유현석 부장대우

지난 15년간 아파트 현장에 근무한 유현석 부장대우는 공법이나 디테일, 현장 관리 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파트 스페셜리스트다. 건축기밀실 품질에 근무하며 다진 풍부한 네트워크로 원활한 현장 관리는 물론 사내 시스템을 적절하게 활용해 현장 관계자와 고객의 만족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처음 현장에 부임한 날, 허허벌판에 튀크로인양 우뚝 서 있어 마치 중동 사막 한가운데 있는 현장에 온 것 같았어요. 준공을 하고 보니 우리에게 '최초'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 더욱 뜻깊습니다. 그동안 함께 고생하신 R&D센터와 본사 유관부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린스마트 기술을 이끄는 혁신 리더 R&D센터 미래기술혁신실 디지털건설팀 이정철 부장대우

2000년 입사 후 R&D센터와 건축사업본부에서 근무하며 친환경 건축 기술 및 건물 에너지, ICT융복합기술 관련 연구를 이어나오고 있는 이정철 부장대우.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GSIC) 건립을 추진했으며 이후로도 미래 주택과 빌딩에 적용할 신기술 연구·테스트에 힘쓰고 있다. 2015년 제로에너지 빌딩 시범사업 공모 시 국토교통부, 인천시와 협의하고 유관기관과 논의를 거듭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우리의 가능성에 대해 수백 번 반문하고 고민하던 게 어떻게 같은데 벌써 준공이라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다양한 분야의 담당자가 모여 전혀 없는 문제를 해결하며 쌓은 노하우가 제로에너지 건축물 관련 수요와 수행에 큰 경쟁력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Smart, safe, energy efficient

Hillstate Lake Songdo Complex I

Hillstate Lake Songdo Complex I is Korea's first high-rise multi-family housing aimed for "zero energy," based on construction technology and methods developed by Hyundai E&C. In 2015, it was selected for the Zero Energy Building Pilot Project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tably, it attempted to combine a variety of technologies, such as passive technology, active technology, renewable energy technology and the Smart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 As a result, it claimed the title of the "leading company" in the development of housing space by obtaining the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Level 1++ and the Zero Energy Building Level 5 with 23.37 percent of energy independence, the first of its kinds among domestic multi-family housing.

An official of the construction site said that they put an emphasis on securing air tightness to increase energy efficiency. Moreover, Hillstate Lake Songdo Complex I took a further step to realize the energy saving of the apartment buildings: It provides better insulation through the use of highly insulated windows and doors, minimizes energy consumption by adopting highly efficient LED lighting, the Hyundai Energy Recovery Ventilation (HERV) and the Total Energy &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TEEMS), and offers the renewable energy produced by solar modules and fuel batteries to the common ar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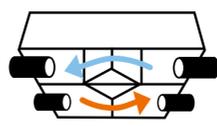
As for safety aspects, Hillstate Lake Songdo Complex I is full of bright lights even at night. This is attributable to the use of th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aimed to increase the overall illumination within the apartment complex and to the installation of surveillance cameras to minimize blind spots. A considerate construction design of lowering the height of walls surrounding garbage collection areas enables residents to look inside and check the garbage dumps.

On top of this, Korea's primary builder made concerted efforts to add value to the premium apartment complex by using functional wallpapers to absorb formaldehyde (HCHO) on bedroom ceilings, creating pleasant residential environments based on TEEMS and boosting residents' convenience with its own Hi-Off. The technology-intensive apartment complex was awarded the Ministerial Award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t the second Korean Intelligent Building Award in recognition that its IT technologies including IoT and networks, and sensors and systems allow its occupants to enjoy pleasant, safe and economically feasible living experiences. The award winning demonstrated once again that the builder solidified its foundation to establish the construction of smart cities.

Next to the Hillstate Lake Songdo Complex I, Hillstate Complex II is scheduled to be completed in coming January.

Zoom in

HERV(Hyundai Energy Recovery Ventilation) 패시브외수 환기시스템



실내 공기를 환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열 손실을 최소화한다. 열 교환소자를 통한 전열교환뿐 아니라 예열과 바이패스(주관으로부터 분기되어 다시 주관으로 연결되는 보조관) 기능을 추가하고, TEEMS와 연동해 오염된 실내 공기를 자동으로 환기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했다. 환기 분야 최초로 녹색기술인증을 취득한 시스템.

TEEMS(Total Energy &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에너지-환경관리시스템



입주자별 생활 패턴에 따라 쾌적한 환경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자동 운전 알고리즘이다. 안방과 거실에 설치된 IAQ 센서(Indoor Air Quality Sensor)가 온도, 습도, CO₂, 농도 및 TVOC(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를 감지하고 기준치 이상일 땐 경우 자동으로 HERV를 가동시켜 실내 공기를 환기한다.

3인 3색 여름나기 프로젝트 열기에 숨기까지 더애 사우나를 방북케 하는 요즘, 7월 말 늦은 장마가 끝나면 폭폭 짙는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사보신로>이 여름을 맞아 후텁지근한 날씨에 지친 사우나들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실내 서핑장으로 피서(避暑)를 떠났다. 거친 인공파도에 몸을 맡기며 신나게 플로우보딩(Flow Boarding)을 즐기며 3인의 색다른 여름나기 프로젝트. 글=박현희 / 사진=이슬기, 더드림핑 제공

‘플로우보딩’으로 파도를 접수하다!
물 만난 사우들의
무더위 탈출기



7월 초, 그룹웨어에 [모집] 수상레저 체험할 사우, 나야나! 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올라왔다. 조회수 4200회가 넘는 뜨거운 반응 속에 선정된 3인은 “사보에 멋진 그림을 만들어 드렸습니 다!” “워터 프루프 화장품을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등 제재 지 있는 댓글을 단 조연서 대리(플랜트수주영입실), 강기주 대리(건 축국내영업실), 박시은 사원(힐스테이트 리버시티 현장). 당첨 전화를 받은 이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홍보실 전화를 받는 순간 쾌재를 불렀어요. 같이 옴보화 전 구는 떨어지고 저만 붙는 것이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죠. 더욱이 실내 서핑장은 첫 방문이라 무척 설레요.” 조연서 대리 “재미있는 댓글이 많길래, 기대 하지 않았어요. 경쟁률이 치 열해 보였는데, 당첨 되다니 전화를 받자마자 동기들에게 자랑 했다니까요(웃음).” 강기주 대리 “봄이면 뱀짓이 생각나듯, 여름에는 단연 물놀이죠! 무기 기쁜 나머지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올해 첫 물놀이이라 더욱 기대 돼요.” 박시은 사원

Round 1 파망! 넘어지는 것도 재미 7월이 무더운 어느 날, 사우제형 이벤트에 당첨된 세 사람이 경기도 남양주의 실내 서핑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이 체험하는 종목은 MBC 예능프로 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배우 성훈이 도전해 화제가 된 플로우보딩(Flow Boarding)! 플로우보딩은

스노보드, 웨이크보드, 스케이트보드의 주요 기술을 결합한 익 스트림 스포츠로 인공파도 위에서 물살을 가르며 보드를 타는 것이 특징이다. 그 종류에는 엥드리거나 무릎을 꿇은 채로 타는 ‘바디 보드’와 서서 타는 ‘스탠드 업 보드’가 있다. 이날 사우들은 균형을 얼마나 잘 잡는지가 관건인 스탠드 업 보드에 도전했다. 준비운동을 마친 세 사람이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간단한 이론 수업을 받았다. 포인트는 무릎을 살짝 굽혀 무게 중심을 낮추고, 몸의 중심을 뒤쪽 발에 뒤 균형을 맞추는 것. 어깨는 보드와 나란히 두고 상체를 앞으로 살짝 굽혀서 자세 잡기가 좀 더 수월 해진다. “홍보실 전화를 받는 순간 쾌재를 불렀어요. 같이 옴보화 전 구는 떨어지고 저만 붙는 것이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죠. 더욱이 실내 서핑장은 첫 방문이라 무척 설레요.” 조연서 대리 “재미있는 댓글이 많길래, 기대 하지 않았어요. 경쟁률이 치 열해 보였는데, 당첨 되다니 전화를 받자마자 동기들에게 자랑 했다니까요(웃음).” 강기주 대리 “봄이면 뱀짓이 생각나듯, 여름에는 단연 물놀이죠! 무기 기쁜 나머지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올해 첫 물놀이이라 더욱 기대 돼요.” 박시은 사원



“여름나기 비법” “오퉴 수영장을 당일자리로!” 서울 근교에 있는 호텔 수영장에 즐겨 가요. 태닝을 하 다 물이 달거지면 풀장에서 물을 식히고, 수영을 한 후 에는 잠깐 쉬면서 맥주를 마시는데, 신선놀음이 따로 없 어요. 강기주 대리

라니요! 보드 위에서 있는 시간보다 물속에 있는 시간이 더 많 은 것 같아(웃음)” 박시은 사원 “스노보드랑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중심 잡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균형을 잡지 못해 자주 넘어졌지만, 싫지만은 않았어요. 강한 물살에 휩쓸려 경사를 거꾸로 오르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거든요.” 조연서 대리 “보드가 발과 고정돼 있지 않아서 인지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힘들네요. 넘어지는 만큼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마구 생깁니다!” 강기주 대리



“게임 만렙”에 도전! 저만의 주말 피서법은 에어콘을 켜며 게임을 하 는 거예요. 7월 날씨가 덥고 습해서 외출하기 싫을 정도였잖아요. 덕분에 배틀그라운드에서 상위 1% 랭커(Ranker)가 됐어요! 박시은 사원



1,2 살레는 마음으로 플로우보딩을 하러 가는 길 3'하나를 셋넷~체형 전 준비운동은 필수 4시간가량 강습을 받은 사우들이 소감을 나누고 있다. 5 살레서핑장 전경.



Round 2 파도 위를 자유롭게 넘나들다! 1시간가량 강습을 받으며 적은 훈련을 마친 사우들이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진 후 2차전에 돌입했다. 강사의 도움 없이 각개전투 로 파도와 싸우기로 한 세 사람, 1차전에서 혹독한(?) 훈련을 한 덕분에 물에 빠지는 횟수가 준 것은 물론 안정적인 자세로 오랜 시간 파도를 즐기게 시작했다. 특히 조연서·강기주 대리는 물살 에 보드가 좌우로 치우쳐도 능숙하게 평형을 만들어냈다. “정말 재미있네요! 파도에 처음 진입할 때가 제일 요령이 필요 한데요. 평정심을 갖고 바른 자세로 시작해야 오래오래 파도를 즐길 수 있어요.” 조연서 대리 “중심을 정확하게 잡은 후부터는 스노보드를 타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울여를 플로우보딩에 꼭 빠질 것 같은 애갑입니다(웃음).” 강기주 대리 “거친 물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1분간 보드 위에서 서 있을 때의 성취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즐거움에 파도를 타구나 싶었죠. 얇은 물에서 하는 활동인 만큼 물을 무시위하는 분도 부담 없 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시은 사원 어느덧 체험을 마칠 시간. 가법게 스트레칭 을 하며 활동을 마무리한 세 사람은 아쉬운 듯 배데랑들의 기고 섞인 플로우보딩을 한 참 바라보며 다음을 기약했다. “기회가 된다면 추후에 이 멤버들과 한 번 더 플로우보딩을 즐기고 싶어요. 그때는 오늘과는 다른 자세와 실력을 뽐낼 수 있었겠죠?” 박시은 사원

“스노보드나 웨이크보드를 즐기는 사람, 날씨와 관계없이 서 평을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빠질 수밖에 없는 운동이에요. 다음에 언제 올지 스케줄을 살펴계 되네요.” 조연서 대리 “많은 사람에게 소문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봄비만 자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웃음).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니 해가 너무 강한 날이나 태풍이 몰아치는 날에도 할 수 있는 점이 매력 이예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기분 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강기주 대리 헤어지기가 서운해서인지 환복 후에는 간단한 요깃거리를 먹으며 담소를 나눴다. 대화 주제는 휴식!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우 체험으로 크게 리프레시가 됐다!” 강기주 대리의 말에 공감한 사우들은 ‘함’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했다. “가끔은 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휴식이 될 때가 있어요. 본사에서 일하는 분들 과 현장에서 일하는 제가 만난 것. 한 번도 경험해 보 지 못한 운동을 배우는 일련의 과정만으로도 힐링 이 됐다(고나) 할까요(웃음)?” 박시은 사원 “휴식도 업무의 연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더 은 날씨에 체력이 많이 떨어질 시기인 만큼 업무와 심을 적절히 분배해 일의 능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우 여러분도 더위를 잊을 만한 곳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조연서 대리

“물이있는 곳으로 고고!” 주말마다 어디가로 떠나는 것도 여름을 잘 보내는 방법이에요. 저는 주말마다 웨이크보드, 서핑, 래프팅 등 을 하러 떠나요. 물속에 있는 시간만큼은 더위를 잊을 수 있어요! 조연서 대리



울여를, 이진 꼭!

전국 방방곡곡 액티비티 베스트
점통더위를 한번에 날려 버릴 전국의 액티비티를 소개한다.



한강으로 떠나는 피크닉 서울 세빛섬 '튜브스터'
서울 한강에서 특별한 여름밤을 보내고 싶다면 정답은 튜브스터다. 세빛섬에서 탈 수 있는 튜브스터는 파라솔을 펼친 동그란 보트로 소음이 작고 조작성이 간편해서 세빛섬 인근을 돌 수도 있고, 보트 위에 기만히 앉아 한강 위를 떠다니는 것도 즐겁다. 음식 반입이 가능해 주전부리를 갖고 탐승하는 손님이 많다. 한번에 최대 6명까지 탈 수 있으며, 여름철인 6~9월에는 오후 2시부터 자정 까지 운영된다. 이용요금은 30분에 주중 3만원, 주말 및 공휴일 3만 5000원. 문의 070-4288-1363



물 위를 떠다니듯 평화롭게 삼척 장호항 '투명 카누'
삼척 장호항은 비교적 파도가 세지 않고 수심이 얕아 투명 카누, 스노클링 등 수상 레저를 즐기기에 최적화돼 있다. 그중 투명 카누는 비닷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안성맞춤! 투고 긴 보트 위에 노를 저으며 물살을 가르는 투명 카누는 바닥이 투명해 마치 물 위에 앉은 듯한 이색 경험을 선사한다. 노를 저으며 들어온 물 탓에 엉덩이 부분이 살짝 젖기 때문에 여벌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체험 비용은 2인용 1대당 2만원(30분). 문의 033-673-3677



바다 위를 달린다! 충남 보령 '스카이바이크'
국내 최초로 바다 위에 설치된 충남 보령의 스카이바이크도 액티비티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다. 자전거 페달 방식의 하늘 자전거인 스카이바이크는 대전해수욕장에서 대전항으로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왕복 2.3km 복선 구간에 설치돼 40분간 보령의 절경을 즐길 수 있다. 대전해수욕장 관광 포인트인 백사장과 바다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용요금은 2인 2만2000원, 3인 2만6000원, 4인 3만원. 문의 041-931-1180



온가족이 함께 카트라이더! 경남 통영 '스카이라인 루지'
스카이라인 루지는 내리막 라이딩을 위해 특수 제작된 루지카트를 타고, 두 개의 트랙 총 2.1km 구간을 내려오는 활동이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키가 작은 어린이도 보호자와 함께라면 루지를 즐길 수 있어 가족 여행지로 안성맞춤. 커브 구간, 턴보, S 구간 등 스티를 맞볼 수 있는 다양한 트랙이 준비돼 있어 친구, 연인과의 여행 코스로도 좋다. 이용요금은 1인 체어리프트+루지 3회 2만3000원. 문의 070-4731-8473

자존감 낮은 직원 vs 나르시즘에 빠진 직원 특이한 성격의 직장 동료와 같이 일하는 법

마음산책 적어도 하루 8시간 이상 함께 생활하는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받은 스트레스는 어디에도 쉽게 터놓을 수 없다. 많은 직장인이 공감할 고민 '직장 내 관계'를 마음치유 전문가 박상미 교수가 조언한다. 글=박상미(『마음아 넌 누구냐』 저자)

매사에 자신감 넘치고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동료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동료. 여러분은 어떤 동료와 일하고 싶으신가요? 또한 자신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직장인들의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성격 특이한 사람'과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회사에는 다양한 성격의 동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유독 일하기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인성이 좋지 않은 동료'죠. 정신의학 적 용어로 보면 '성격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과도 함께 일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존감'으로 나눌 수 있는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자존감에도 '급'이 있다

자존감(Self-esteem)은 말 그대로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일종의 '자기 확신'이죠. 분명히 할 것은 자존감에도 급이 있어요. 자존감이 잘 형성되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대인관계도 원활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타인과 잘지내지 못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반면 자존감이 너무 높은 사람은 자신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특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만해져 제멋대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팀원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실수가 생겼다고 가정해 보세요.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다르답니다.

- ▶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 내가 그렇지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이제 우리 팀원들도 나와 업무를 같이 하려고 하지 않겠지.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 ▶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 혼자 했으



면 분명 실수 없이 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괜히 A와 같이 해서 나까지 망했잖아. ▶균형 잡힌 자존감을 가진 사람: 내가 놓쳤던 부분이 있구나. 얼른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존감은 인생의 모든 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경우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형성된 자존감으로 평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자존감은 상황과 타이밍에 따라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 때문에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체크해 볼까요? 다음 중 5가지 이상 항목에 해당하면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해당합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 테스트

- 1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도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예: 성취와 능력에 대해 과장한다. 적절한 성취 없이 특별한 대우 받는 것을 기대한다).
- 2 무한한 성공, 권력, 명석함, 아름다움과 같은 공상에 몰두한다.
- 3 자신의 문제는 특별하고 특이해서 높은 지위의 사람(또는 기관)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가

- 4 과도한 승배를 요구한다.
- 5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예: 호의적인 대우 받기, 자신에게 자동적으로 순응하기를 불합리하게 기대한다).
- 6 대인관계에서 착취적이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한다.
- 7 감정이입이 결여돼 있다(타인의 느낌이나 요구를 인식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
- 8 다른 사람을 자주 부러워하거나 타인이 자신을 시기하고 있다고 믿는다.
- 9 오만하고 건방진 행동이나 태도를 보인다.

자료제공:서울대학교병원 의약정보

자존감 회복을 위한 코칭

자신감이 너무 강한 나르시즘(자기애성 인격장애)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서 벗어나 남에게 배우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다는 속담이 있죠. 자신의 결점을 극복하고 좁은 시야를 넓히기 위해선 듣기 싫은 이야기도 받아들이고 그 말 속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남들과 함께 하는 업무를 늘려 보세요. 업무를 하며 팀원을 돕는데서 협조적인 성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행동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손해 보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낮은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질타하고 창피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한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수한 자신을 인정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입니다. 나쁜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신감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은 스스로를 격려하는 거죠. 자존감이 낮고 비관적인 사람은 스스로 이론 성과도 과소평가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충분하다고 믿고 스스로 용기를 북돋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민상담소



같은 팀 후배가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업무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말하면 위축되고 풀이 죽은 모습을 보여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후배의 자존감도 올려주면서 업무의 방향까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후배의 경우 자존감이 낮아서 자신의 가치와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진심으로 걱정돼 도와주고 싶는데 말을 꺼내면 흔계당한 것처럼 풀이 죽어서 업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수까지 연발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때는 상대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후배의 '유능감'을 찾아주는 거죠. 작더라도 후배의 유능감을 찾아서 진심으로 칭찬해 주세요. 조언이나 충고를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유능감을 언급하고 칭찬한 다음 '이런 점을 보완하면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후배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예요. 또한 후배가 자신의 능력을 만족하며 건강한 자존감을 키워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동기는 항상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을 돋보이려고 저를 끌어내려요. 추후에 이런 상사를 만날까 걱정됩니다. 만약 이런 성격의 상사나 동료를 만나 업무를 함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이런 성격의 상사나 동료를 만나 업무를 함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과해지면 자신을 실제보다 과대포장하게 돼요. 남들이 볼 때는 '자기과시'가 심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극심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이미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모습은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외형적 자아의 우월감과 내면적 자아의 열등감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쉬운 데 이것이 바로 나르시즘으로 발현될 수 있어요. '자기애성 인격장애'죠.

심리학에서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연민'의 감정을 많이 가지기를 권합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자신의 약점을 들켜지 않기 위해 인간 힘을 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만약 고민하는 사람이 직장 동료라서 함께 일해야 하는 관계라면 '연민'의 감정을 최대한 발휘해 주세요. 그럼 풀 보기 싫고 듣기 싫고 함께 일하기 싫은 마음이 많이 누그러질 거예요. 특히 직장 상사라면? 방법이 없어요. '팀장님, 자기애성 인격 장애인 것 같은데요.' 자존감을 좀 키

우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모르지 않아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마음으로 상대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 때문에 감정 소모는 하지 마세요. 일단 함께 하면 됩니다.

이 글을 읽다 보니 자신도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걸 알게 되었다고요? 누구나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만 자주 내 마음을 점검하고 자제하면서 건강한 '자기애'를 키워 나가면 됩니다.





해외건설시장 동향 ⑤ 인도네시아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빈방문 국가로 인도네시아를 선택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및 경제 규모 면에서 동남아 지역의 40%를 차지하는 비중 있는 국가로, 건설시장 역시 아세안 국가 중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의 건설 진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글=박형진 해외건설협회 아시아실 과장

교통·전력 부문 기대 UP... 잠재력의 나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주요 건설시장이다. 1970년 처음 진출한 이후 2019년 6월까지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의 2.3%에 해당하는 190억 달러를 수주하고 있는 세계 12대 건설 시장이자,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425억 달러), 베트남(395억 달러), 말레이시아(209억 달러)에 이어 4대 건설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54.7%(UNCTAD, 2018 e-Hand book of Statistics 참조)가 자바섬을 비롯한 도심지에 집중된 만큼 해당 지역에서의 인프라 수요가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다양한 인프라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Indonesia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120억 달러를 투자해 인프라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문별 투자 비중은 교통(60%), 에너지(17%), 관개(10%), 정보통신(8%), 물 공급 및 위생시설(5%) 순으로 전체 재원 중 정부가 40%, 국영기업이 25%, 민간자본으로 나머지 35%를 충당할 계획이다.

교통 체증으로 몰살... 도로&공항 개발 성행 중

인도네시아의 교통 체증은 악명 높다. 교통정보 분석회사 인릭스(INRIX)는 2017년 기준으로 수도 자카르타의 혼잡도를 세계 12위로 평가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교통 체증으로 연간 5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1만7000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된 지역적 특성 역시 물류 비용 증가 원인이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인프라 개발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는 2024년까지 1500km 길이의 유료 도로를, 2030년까지 4479.33km 길이의 추가 유료 도로를 자바, 수마트라, 칼리만탄 등에 건설할 계획이다.



수도 자카르타의 높은 인구밀도를 해소하기 위한 MRT (Mass Rapid Transit) 개발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 25일 자카르타 도심지의 분단란 HI(Bundaran HI)와 자카르타 남부의 르박 불루스(Lebak Bulus)를 연결하는 15.7km 연장의 도심고속철도(MRT)를 개통했다. 이와 더불어 자카르타 도심지의 사리나(Sarinah)와 자카르타 북부의 코타(Kota)를 연결하는 7.8km 연장의 2단계 사업 착공식도 지난 3월 진행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동 프로젝트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8월, 6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차관 계약을 일본과 체결했다. 자카르타의 동서를 연결하는 3단계 프로젝트는 202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역시 일본이 차관을 제공할 의향이 있으나, 인도네시아 측에서 다른 파이낸싱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2028 전력수급계획 발표... 전력 부문 주목해야

인도네시아 정부는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19년 2월, 전력수급계획(Electricity Procurement Plan, RUPTL) 2019~2028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56.6GW의 신규 발전용량을 확보하고, 이 중 33.7GW는 민자발전 프로젝트(IPP)로 추진할 예정이다.

석탄을 통한 전력 생산도 전체 에너지믹스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의 문제로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현재의 약 29%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수력과 지열을 민자발전 프로젝트로 각각 3139MW와 3060MW로 증설할 계획인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수력발전 프로젝트로는 카얀(Kayan) 수력발전사업이 있다. 5단계에 걸쳐 추진될 계획인 이 사업의 1단계 EPC 프로젝트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수행한 중국의 PowerChina가 담당하며, 2023년 준공과 함께 칼리만탄타무르(East Kalimantan)주에 900MW 규모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5단계가 완료되면 총 9000M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세계 3대 지열에너지 자원 보유국임을 감안할 때 지열발전 프로젝트에도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8년 5월, 사룰라(Sarulla) 지열발전소 3단계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수마트라우타라(North Sumatra)주에 위치한 이번 17억 달러 프로젝트는 규슈전력(Kyushu Electric Power, 25%), 이토추(Itochu, 25%), 메드코(PT Medco Power Indonesia, 18.99%), IN



PEX(18.25%), 오맷(ORMAT International, 12.75%)이 설립한 SOL(Sarulla Operations)이 30년간 운영하며 총 210만 세대에 전력 공급과 함께 13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현대건설이 이번 프로젝트의 EPC를 담당할 경험에 있는 점은 추후 발주될 지열발전 프로젝트에도 긍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일 삼파전에서 선전 기대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은 잠재력이 많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도 존재한다. 먼저 인도네시아 정부 재정의 한계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지만,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차관 또는 민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료제적 형식주의(Red Tape)도 사업 환경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다. 예컨대 자카르타와 반둥(Bandung)을 연결하는 60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경우 당초 2016년 8월 착공 예정이었지만, 토지 획득 과정에서 과도한 형식적 절차와 사회적 논란 등으로 인해 2년 이상 지연된 바 있다. 현재 토지 획득의 92%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2019년 4월 기준) 2021년 중순으로 개통이 연기된 상태다.

반면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2019년 6월 27일)은 국내 건설사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연설에서 “두 번째 임기에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며 “우선 고속도로·철도·항만·공항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국민 생산지역을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권 2기 최우선 과제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과감히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사업 환경 개선도 기대된다.

이에 국내 건설사는 인도네시아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한층 더 활성화하고 재원조달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한국 수출입은행·한국전력 등의 공기업과 상호협력해 개발사업 진출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류 열풍에 힘입어 기업 이미지 제고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향후 인도네시아에서의 한·중·일 삼파전 속에서 국내 건설사의 선전이 이뤄질지 바란다.

1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전경. 2 현대건설이 지난해 5월 준공한 인도네시아 사룰라 지열발전소 현장.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지열발전소 프로젝트다. 3 현대건설이 시공한 자코라이 고속도로 모습.

소설가 정유정

“인간 중심 사고는 과연 온당한가”

피플 인사이드 “시간의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서양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의 말이다. 이 한 문장이 소설가 정유정의 작품 궤도를 바꿨다. 그는 원래 ‘바다에 갇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했다. 1년여 자료 조사도 마쳤고, 줄거리와 개요도 써둔 참이었다. 그러나 책을 쓰기 전 마지막으로 읽은 러셀의 한 문장이 그의 발목을 잡아 29년 전 어느 날로 데려갔다. 글=유슬기 <topclass> 기자 / 사진 제공=은행나무

정유정 작가가 간호사로 일하던 당시, 근무하던 병원 중환자실에 어머니가 내려왔다. 이미 3년의 투병 생활을 지켜봤지만 중환자실에서 본 어머니는 생경했다. 의식 없는 채로 3일, 러셀의 말처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었다.

29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사흘의 기억이 작가를 찾았다. 생의 가장 치열했던 그 순간이 소설 『진이, 지니』가 세상에 나온 배경이다. 『7년의 밤』으로 정유정의 세계에 입문한 이들은 ‘슬프지만 다정한’ 이 작품이 낯설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등단작인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를 읽은 이들은 이 작품이 반갑다고 한다.

“저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소설의 모티프가 되는 소재이기도 하고요. 『진이, 지니』는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 『내 심장을 쏘라』와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저는 줄곧 인간의 어두운 본성인 ‘악’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자유의지’라는 두 테마를 가지고 소설을 써왔어요. 작가가 평생 동안 작품을 통해 많은 테마를 다룰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를 유명하게 만든 건 『7년의 밤』 『28』 『종의 기원』인데, 이번 소설을 읽은 독자들이 심심하게 느끼진 않을까 걱정되기도 해요.”

생명을 대하는 ‘타당한 자세’에 대하여

소설 『진이, 지니』에 등장하는 유인원 책임사육사 진이는 성숙한 인격을 지닌, 파스하고 다정한 사람이다. 과거 밀렵된 야생 보노보(피그미 침팬지)를 구하지 못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시간이 흘러 사립 동물원에서 이탈한 보노보 ‘지니’를 구하러 간 날, 진이는 교통사고를 당하며 의식을 잃는다. 아니, 진이의 의식이 지니의 몸 안에서 깨어난다. 그는 ‘진이’인가, ‘지니’인가.

“그게 바로 소설적인 상황인 거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의외로 세상일도 뒤틀려서 흘러가요. 소설은 그런 상황을 비추죠. 인생의 자그마한 사건이 운명을 뒤바꾸는 일들이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소설이고, 그걸 어떻게든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려는 노력이 이야기의 줄기가 되는 거죠.”

인간사의 구석구석을 치밀하게 헤치던 정유정의 소설이 판타지의 세계로 넘어온 듯 보인다. 사실 장르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던지고 싶은 물음 중 하나는 ‘인간 중심의 사고가 과연 온당한가’였기 때문이다. 인간과 유전자 98.7% 일치한다는 보노보. 그는 이번 작품을 쓰기 위해 한국에는 없는 보노보를 찾아 일본과 독일로 향했다. 그곳에서 감명 받은 건 보노보라는 생명체를 대하는 연구진의 ‘타당한 자세’였다.

“그들은 보노보를 연구하지만 연구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의 생명으로 대하죠. 연구소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인간을 위한 게 아니라 보노보를 위한 겁니다. 모든 실험은 보노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형태로 진행돼요.”

진이의 여정 역시, ‘지니’에 대한 타당한 자세로 귀결된다. 진이는 3일 동안 지니의 몸속에서 나가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단 한 번의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음을 직감한다. 그때, 진이는 깨닫는다. 사흘간 몸을 빌려 살고 있는 생의 주인은 바로 ‘지니’라는 것을. 문학평평가 정여울은 이를 두고 ‘선한 가해자의 트라우마’라고 썼다. 평소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선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누군가를 가해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한다. ‘진이’는 ‘지니’에게 삶을 돌려줌으로써 자신과도 화해한다.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닌 선택이었다.



정유정 작가는-

2007년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로 제1회 세계청소년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등단 이후 치밀한 자료 조사와 취재를 바탕으로 쓴 『내 심장을 쏘라』로 제5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했고, 이후 강렬한 주제 의식과 탁월한 구성, 스토리를 관통하는 작가라는 평을 들었다. 대표작은 『7년의 밤』 『28』 『종의 기원』 등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

“뒤틀린 인생에 관심이 많아요. 행복하고 평탄한 삶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소설을 통해 알고 싶어 하는 것도 그런 거라 생각해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는 거죠. 문학의 힘은 삶의 이면을 보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종(種)의 한계를 넘어 정유정이 찾고 싶었던 답, ‘하찮은 인간이 지구에서 출세한 이유’를 그는 찾았을까? 정유정은 그 답을 소설 속 ‘하찮은’ 인물 민주에게 찾은 듯하다. 민주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밀려난 인물이다. 유일한 재능은 감응력(어떤 느낌을 받아 마음이 따라 움직임)인데, 인간사회에서 출세하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과 동물의 신음에 미세하게 반응하는 민주는 진이와 지니의 여정에 유일한 동반자가 된다.

“갈수록 우리 사회는 공존이나 공감을 무시하는 느낌이예요. 인간이라면 상대방의 고통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신경을 끄고 마음을 차단하는 사회가 되어가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건 오직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를 연민하고, 또 상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오직 인간이 인간답죠.”

여전히 성장 중인 작가, 정유정

판타지의 외피를 쓴 성장소설이 『진이, 지니』라고 말하는 정유정 작가 역시 성장 중이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고 믿는 그를 자라게 한 것 역시 운명이 사나운 기세로 몰아붙였을 때다. 하나의 고비를 지나면 또 막다른 골목이 나온다. 그때마다 정유정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 차가운 물을 건너고 나면, 따뜻한 땅이 있을 거라고.

“글을 쓰면 바로 작가가 될 줄 알았는데, 6년이나 걸렸어요. 공모전에서 11번 떨어졌죠. 좌절도 좌절인데, ‘나는 글을 쓸 사람이 아닌데 내가 글을 쓴다고 설치고 있는 건지도 몰라’라며 제 자신을 의심했어요. 스스로가 초라해 보이고 내가 쓴 글이 쓰레기 같아 보였죠.”

절치부심 끝에 등단했지만 꽃길이 펼쳐진 건 아니었다. 여전히 그는 이방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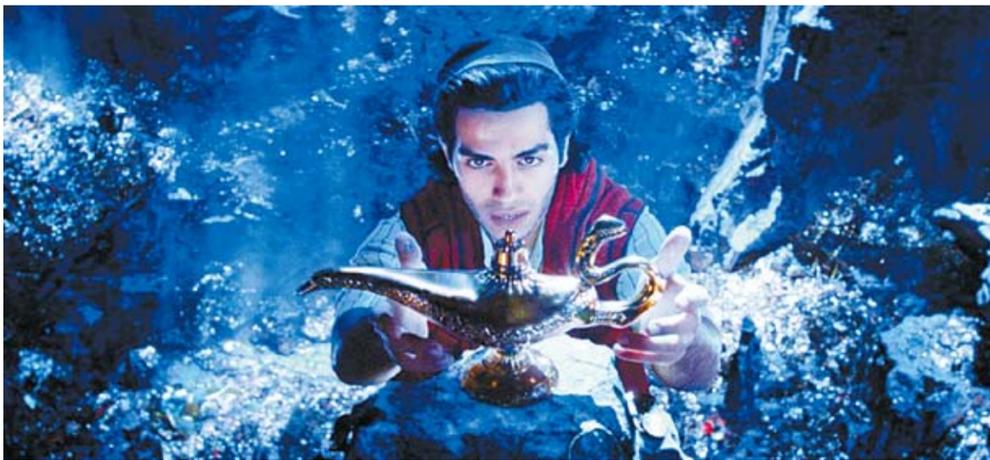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쳐 이마뺨에 피가 나는 기분으로 부딪혔어요. 등단했을 때가 마흔한 살이었는데, 그전까지 제일 늦게 등단한 분이 박완서 선생님이더라고요. 문단에 들어온 뒤로도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생각했죠. ‘나는 작가가 되고 싶나, 글을 쓰고 싶나, 그 질문은 저의 자유의지를 묻는 거였어요.’

답은 후자였다. 글을 쓰겠다는 의지 하나로, 맨발로 찬물을 건넜다. 자신이 잘 건너고 나면, 다음번엔 어떤 물꼬가 트일 거라 생각했다. 그의 바람대로 순문학이 주류였던 문단에 장르문학도 하나의 줄기가 됐다. 문학상에서 장르문학, 스텔러문학이 뽑히기 시작한 것도 정유정의 성공 이후였다.

정유정은 유자나무 ‘유(柚)’에, 우물 ‘정(井)’을 쓴다. 이름엔 잘 쓰지 않는 한자이나 사주에 불(火)이 많은 딸을 염려해 그의 어머니가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사주처럼 그의 소설은 뜨겁다. 한 편의 소설을 읽었을 뿐인데 한바탕 전쟁을 치른 것처럼 기운이 쑥 빠진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운이 생긴다. 하찮은 인간의 존엄함, 그 애잔한 생명에 대한 연민 같은 것들이다. 운명이 우리 삶의 산등성이를 불태워도, 그 민둥산에서 또 새싹은 자라리라는 기대. 밀이 보이지 않는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린 그 사랑에는 유자처럼 시시만달리한 향이 난다.

허술한 보안이 부른 참극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과학산책 6세기 페르시아에서 전해지던 설화를 모은 『아라비안나이트(천일야화)』는 아랍문학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유럽에는 1704년 프랑스의 앙드레 갈랑이 불어판으로 소개하면서 비로소 알려졌다. 흥미로운 것은 『아라비안나이트』에서 가장 유명한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과 〈알라딘과 마술램프〉는 원전에 없다는 점이다. 이 두 편은 갈랑이 번역판을 내면서 첨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원작자는 알 수 없지만 아랍을 배경으로 환상적인 물건의 향연이 펼쳐지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통해 '보안'에 대해 생각해보자. 글=최원석 과학칼럼니스트



비극의 서막 '패스워드'

'아브라카다브라(Abracadabra)'나 '오블리비아테(Obliviate)', 최근 레드벨벳 신곡 타이틀로 알려진 '짐살라빔(Zimzalabim)'은 어떤 마법적인 일이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외우는 주문(呪文)이다. 주문이나 마법을 믿던 시절 주문은 어떤 신비한 일을 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였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서 동굴의 문을 열 때 사용하는 주문도 마찬가지로 보물창고인 동굴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패스워드였다.

도둑들은 동굴의 패스워드를 왜 하필 '열려라 참깨(Open Sesame)'로 했을까? 아마도 'Open says me'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거나, 참깨 꼬투리가 열릴 때 나는 소리와 동굴 문 열리는 소리가 비슷해서 일 수도 있다. 비밀번호에 무작위 철자를 사용하기보다 기억하기 좋도록 연관성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쨌건 도둑들은 비밀번호가 누출돼 낭패를 본다. 여러분이라면 ATM기 앞에서 비밀번호를 크게 말하면서 번호를 누르겠는가? 보안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도둑들은 동굴 앞에서 패스워드를 크게 외침으로써 보물을 다 털리고 끝내 모두 죽게 되는 비극을 맞았다. 하지만 당시 관점에서 정확하게 암호를 대야만 통과할 수 있는 동굴은 첨단 보안시설이었던 셈이다. 단지 문제는 패스워드 입력 방식이 너무 허술했다는 것이지만.

전래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호랑이나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에서 늑대가 엄마 흉내를 낸 것은 모두 초기의 신원 증명 방식을 보여준다. "누구세요?"라고 묻거나 문뜰모로 보는 것은 목소리나 외모와 같은 생체 정보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마을 단위로 생활할 때는 주민들끼리 서로 잘 알고 있었기에 외모나 목소리 같은 생체 정보로 신원 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이동 범위가 넓어지며 외부인의 출입이 잦아지면서 신원 증명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통행증의 역할을 하는 신분증, '여권'이다. 여권은 외국을 여행할 때 필수적인 서류지만 처음 여권이 등장했을 때는 국적이라는 개념도 명확하지 않았다. 단지 다른 도시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이 필요해 만든 것이었다. 문제는 신분증 방식은 복제나 도용의 위험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중요한 신분증일 수록 고급 소재나 문양을 이용해 화려하게 만들었고 지금은 홀로그램이나 은화(Watermark), 특수 잉크나 인쇄 기법을 동원하는 등 다양한 위변조 방지 기술을 사용한다.



마술램프와 생체 인식 기술

〈알라딘과 마술램프〉에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의 동굴보다 뛰어난 보안시설인 생체 정보 인식 동굴이 등장한다. 마법사 자파가 굳이 알라딘을 시켜 마술램프를 가져오게 했던 것은 동굴의 보안을 뚫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굴 출입자가 명단에 자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동굴의 설계자는 출입을 허가할 수 있는 사람의 신원 정보와 생체 정보를 결합시켜 등록해 두었고, 동굴은 생체 인식 과정을 통해 허가된 사용자인 알라딘에게 입구를 열어 주었던 것이다.

동굴 보안이 우수했던 것에 비해 정작 가장 중요한 마술램프의 보안은 너무나 허술했다. 자동차 키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듯 마술램프를 소유하면 누구나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었기에 알라딘과 자파 사이에 뾰족뾰족한 일이 생긴 것이다. 사실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 현대의 마술램프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분실 사건이 매년 수만 건 이상 생기는 이유도 소유한 사람이라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취약한 보안에 있다. 카드 뒷면 서명을 강조하지만 이걸로 도용을 막기는 힘든 게 현실이다.

마술램프에서 나타난 지니가 알라딘의 행색을 바꿔 왕자로 변신시켜 버린 것처럼 옛날에는 '소유한 물건' 자체가 신분을 증명하기도 했다. 동화 〈왕자와 거지〉에서 단지들의 옷만 바뀌었을 뿐인데 신분이 바뀐 것도, 누군가 지닌 마패, 호패, 반지 등이 그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마법의 동굴이나 아서왕의 엑스칼리버, 토르의 물니르처럼 신물(神物)은 물건이 주인을 인식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마술램프 보다 뛰어난 보안성을 보여준다. 주인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도록 신원 증명에 생체 인식을 이용한 것이다. 생체 인식은 외모나 목소리뿐 아니라 홍채나 지문, 혈관분포 등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생체 정보를 활용한다. 생체 정보는 비밀번호 누출로 인한 위험성이 적어 사용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신분 증명은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다. 과거와 현대의 방법에서 원리상 달라진 것은 없다. 단지 네트워크로 연결된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와 달리 지인(知人) 뿐 아니라 초면인 사람도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이다.

문화책갈피

취미와재미를 한번에, 원데이 클래스

즐기고 배우며 워라밸을 맞추고 싶다면 취향에 딱 맞는 원데이 클래스를 찾아보자. 정기적 수업이나 모임에 비해 일정·비용 부담이 덜해 이것저것 즐겨보기 좋다.

와인과 그림으로 마음 돌보기 와인앤캔버스

표현예술심리치유센터 '살레'에서 운영하는 치유 클래스. 와인 한잔 곁들여 그림을 그리고 다양한 사람과 이야기 나누며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복합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그림 실력은 필요치 않다. 전문 예술치료사의 안내에 따라 솔직하고 진지하게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의 기회.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10시
주소 서울중구 후암로 110
문의 02-310-9111

손끝에서 피어나는 힐링 타임 꾸까 플라워 레슨

꽃으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kukka에서 열리는 플라워 클래스. 화병꽃이, 핸드타이드(꽃다발), 꽃바구니, 브레이슬릿(꽃팔찌)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싱그럽고 아름다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수업. 클래스는 이태원점, 광화문점, 잠실점에서 열린다.



비용 작품에 따라 상이
문의 1661-1031
kukka.kr/class

힙한 클래스 바로 여기! MIX YOU DJ

미디어나 페스티벌을 통해 디제잉이 많이 알려졌지만,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럴 때 더욱 유용한 원데이 클래스. 디제잉 기초와 장비 운용 등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해 자신에게 맞는 클래스인지 가늠할 수 있다. 심장을 뜨겁게 울리는 비트 위에서 춤추고 싶은 사람, 여기 모여라!



주소 서울마포구
양화로길 32
문의 02-338-0929
mixyoustudio.com

TIP 나에게 맞는 원데이 클래스를 찾고 싶다면?

숨씨당 www.sssd.co.kr

프립 www.frip.co.kr

탈링 taling.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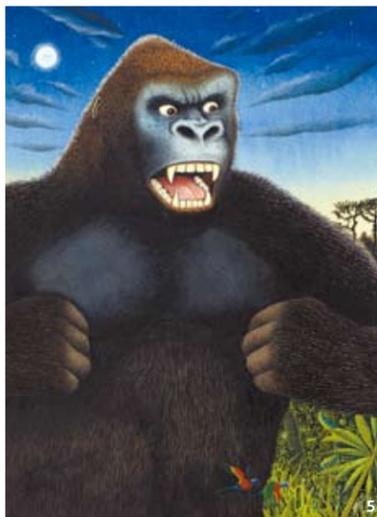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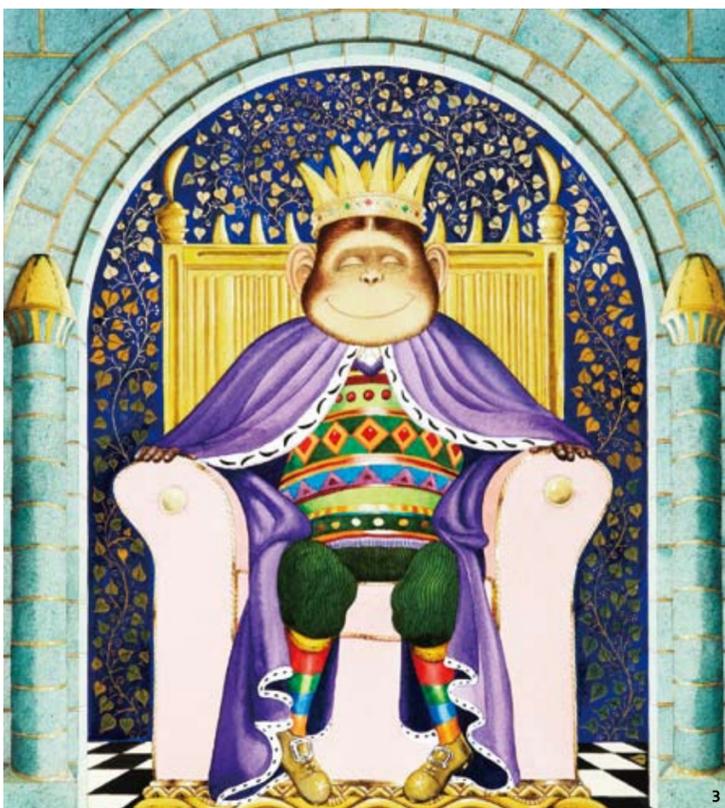
메이아일랜드 mayisland.com



- 1 Willy the Dreamer(꿈꾸는 윌리), 1997.
- 2 Unpublished work.
- 3 Willy the Dreamer(꿈꾸는 윌리), 1997.
- 4 Little Frida(리틀 프리다), 2019.
- 5 King Kong(킹콩), 1994.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극장展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06.08 ~ 09.08

Anthony Browne's Happy Theatre

어린이 책의 노벨상이라 일컬어지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의 주인공, 앤서니 브라운 전시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 돌아왔다. 국내 미발간 작품과 신작을 포함한 150여 점의 원화와 다양한 체험 기회들로 채워진 이번 전시에는 앤서니 브라운이 국내 작가와 협업한 설치미술·오브제·영상·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현대미술도 만날 수 있다.

‘행복극장’이라는 독특한 타이틀 아래 7개의 테마로 다채롭게 구성된 이번 전시에는 올해 신작 ‘Little Frida’를 원화와 함께 작은 뮤지컬 공연으로 만날 수 있다. 또한 국내 작가들이 앤서니 브라운과 협업해 준비한 ‘마술연필을 가진 꼬마 꿈’(1988)은 3D 미디어아트로, ‘우리는 친구’(2008)를 모티프로 한 설치미술, ‘앤서니 브라운의 킹콩’(1994)을 재해석한 영상도 볼 수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앤서니 브라운이 남겨놓은 그림과 글 사이사이의 여백이다. 관객을 저마다의 스토리텔러로 초대하는 그의 작품들은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연인끼리, 친구끼리 혹은 자기 자신에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소중한 사람과 함께 앤서니 브라운展에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